



# 겨우 3개

월평초 3-1 전수경

식판 위에 초록색 군복을 입은  
대과 병사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겨우 넘어섰더니  
'퍼석퍼석' 감자밭에 내 발이 '쑹쑹' 빠진다.

'꿈틀꿈틀' 기어서 빠져나왔더니  
뼈얼건 파프리카 군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파프리카 하나하나 건져 해산시켰더니  
나랑 친한 당면과 양파가 짬뽕 궁전으로 안내한다.

세상에나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달콤한 소스 갑옷을 입은 짬뽕

그런데 겨우 3개

